



Korean Practice Tax Newsletter

Feb. 17, 2017

2017-1 호

IN THIS ISSUE

Korean Practice
Tax Newsletter

LB&I Launches Compliance Campaign

IRS 의 13 개 집중 세무조사 공시

2017년 1월 31일 IRS의 Large Business and International division (이하, “LB&I”)은 13개의 집중 세무조사 (campaign) 항목을 공시하였다. IRS는 세무조사의 방향을 세무쟁점 중심의 감사(Issue based examination)로 전환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. 이에 맞추어 IRS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슈를 집중 세무조사 항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항목에 대한 납세자들의 보다 향상된 세법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등 IRS의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. 해당 집중 세무조사 항목들은 LB&I의 데이터 분석 결과, IRS 세법준수 담당 직원들의 추천, 그리고 세무관련 업체 및 단체 (tax community)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되었다. LB&I는 지속적으로 세무관련 업체 및 단체와의 논의를 통하여 향후 집중 세무조사 추가 항목을 발표할 것이다.

이번에 1차로 발표된 13개의 집중 세무조사에는 에너지세액공제, 해외금융계좌신고, 제조업소득공제 등 미국의 일반납세자에 해당되는 내용 및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기업들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. 특히 이전가격, 관계사거래, 외국기업의 세무신고 등 한국계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

있을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집중 세무조사 항목으로 선정되어 이에대한 IRS 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.

수입유통업체 집중 세무조사

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이 손실을 기록하거나 적은 규모의 이익을 세무신고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, 이는 해당 회사들이 수행하는 기능 및 부담하는 위험과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. LB&I 는 이들 회사들이 정상적인 거래를 수행하였다면 더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. LB&I 는 본 집중 세무조사를 위한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, 해당 프로그램은 국세청 조사관들이 이전가격과 관련한 문제들을 조사할 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

관계사 거래 집중 세무조사

본 집중 세무조사 항목은 관계사간의 거래를 통해 법인의 자금을 다른 도관 회사 (pass through entity)나 주주에게 불법이전하는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 LB&I 는 중간규모 시장 (mid-market) 부문 (매출액 규모가 \$100 million 에서 3 billion 인 회사들) 에 속한 납세자들의 관계회사 거래와 관련한 세법준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.

Form 1120-F 미 제출 집중 세무조사

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회사들은 법인세 세무신고양식 Form 1120-F 를 통해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IRS 에 신고해야한다. 미국에 법인설립을 하지않고 한국본사에서 직접 미국시장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기업으로서 미국에 세무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. 그러나, LB&I 의 자료에 따르면 상당 수의 회사들이 이러한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

있지 않고 있는 바, LB&I는 다양한 외부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회사들을 확인하고 이들 회사들로 하여금 세무신고를 적법하게 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. 만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, LB&I는 올바른 납부세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.

본 뉴스레터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, KPMG 한국부의 각 지역 (뉴욕, 로스엔젤레스, 애틀란타) 담당자나 기고자 (김상훈: sanghoonkim1@kpmg.com)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New York

박상환: 212-872-6993, shpak@kpmg.com

이웅근: 212-872-7954, guslee@kpmg.com

이경렬: 212-872-5658, kklee@kpmg.com

김범준: 212-872-6797, bjkim@kpmg.com

Los Angeles

김준경: 213-955-8514, jkkim@kpmg.com

김창욱: 213-593-6683, cpkim@kpmg.com

성윤상: 213-817-3215, ysung@kpmg.com

Atlanta

강훈규: 404-222-3580, hoonkang@kpmg.com

홍정기: 404-222-3066, chong@kpmg.com

kpmg.com/socialmedia



[Privacy](#) | [Legal](#)

You have received this message from KPMG LLP. If you wish to unsubscribe or have any questions, please send an email to us-laxkoreanpractice@kpmg.com.

© 2017 KPMG LLP, a Delawar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nd the U.S.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("KPMG International"), a Swiss entity. All rights reserved.

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.